

<2010년 2월 28일 주일말씀>[참고 과거 말씀]

"이겨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

[흰 돌과 흰 돌에 새겨진 이름]

<흰 돌>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선생도 월명동에서 기도생활을 할 때 니콜라 당 같은 다른 교훈을 벗어났고, 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던 구시대의 부족한 신앙을 벗어나 깨끗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주님이 흰 돌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 흰 돌은 손 안에 쥔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이름은 안 보였습니다.

꿈에 사자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향해 기어오는데 내가 그 흰 돌을 던지며 쫓아가니 도망갔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사탄들이었고, 인사탄들이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고 계시록 2장을 보았습니다.

흰 돌은 주님이고, 그 이름은 안 보였으나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섭리인들은 외부에서 섭리사를 비난하며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니콜라 당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며 행음하는 자들과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이요, 또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요, 음란한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섭리사에 뜻을 펴며 전해 주시는 말씀만 받고, 그 외의 교훈은 들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론이 맞는 것 같아도 실상을 보면 거짓이요, 사탄의 논리입니다.

선생은 주님께 흰 돌을 받고, 늘 사탄과 세상과 비진리를 주장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흰 돌>은 주님이요, <그 안에 기록된 새 이름>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흰 돌을 받고 나서 이 시대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흰 돌에 기록된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받는 자 외에는 모릅니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사명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장 같은 말씀, 검과 같은 시대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받는 자밖에는 모릅니다.

결국 선생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년 동안 외쳐, 주님과 함께 섭리나라를 세웠습니다.

사탄을 멸하고 인사탄들을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인성으로 살아 주님이 촛대를 옮겨 그 위치에서 벗어난

자들은 섭리인들을 시기 질투하며 사탄의 주관을 받아 섭리사를 비난합니다.
뿔뿔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에게 전하지, 왜 섭리사를 물고 늘어집니까?
그러니 사탄의 행위입니다.
그들을 불신하고 배설물로 여겨야 이기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주님을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고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